

서울 近郊 傳統 農村의 變化

鄭 부 매* · 崔 基 燁**

대도시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서울 근교에서도 사회 구조상의 이질화를 선명하게 드러내어 집단 유형의 유별화와 계 요소들의 대조적 관찰을 의미있게 수행할 수 있는 동성촌을 선택하여 공업화에 따른 여러 변화의 특성들을 기술하였다. 이 지역에는 임해 지역이나 공업 단지와는 달리 주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1979년 이후부터 공장 입지의 형성이 본격화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행정군, 경기도 및 서울로부터 생산기술적 노동자들이 이입하여 능성구씨 동성집단과의 혼주가 진행되면서 촌락의 사회적 이질화가 심화되었다. 사회구조 변화의 직접적 요인이 된 공장입지의 형성을 토대로 가족, 인구 구성, 직업 경력, 주거 경력 등의 특성과 변화를 두 1차적 집단과 기타의 하부 집단별로 관찰하여 그 이질화를 확인하려 하였다. 각 집단 가구주의 생활사를 채집하여 촌락의 여러 사회적 특징들을 해부학적으로 기술하는데 주력하였다.

主要語 : 同姓村, 서울 近郊, 社會的 異質化, 生活史, 非農家率, 健康한 地域

1. 序 論

1) 研究 目的

일반적으로 농촌 변화라 할 때 脫農化를 뜻하나 그 과정이나 내용에는 지역이나 시대에 따른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대도시 근교의 농촌과 일반 농촌의 그것을 구별해 볼 수 있겠는데, 후자의 경우 도시지향 약년층 인구의 이출에 의한 영농의 축소나 방기에 의하여 그것이 진행되는 때 대하여 도시 근교의 탈농화는 도시적 산업 및 토지 이용의 확대 혹은 침입에 의한 轉業이나 겸업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도시 근교의 전통 촌락에 공업입지가 형성되는 경우 노동력은 촌락 외부에서 유입되어야 하므로 住居의 충분한 확대없이 촌락의 인구 규모는 증대되고 혈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地元 주민과 이입민 사이의 집단간 이질화가 직업, 소득, 가족 구성, 주거 형태 등의 여러 사회적 요소들에서 대조적으로 顯在化된다.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같은

사회구조상의 차별화가 현재화 된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보다 근원적인 사회적, 지역적 문제들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인간 활동의 대립적인 場으로 보고 二元化하려는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각들은 흔히 도시가 지배하고 종속시켜야 할 촌락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도시 혹은 도시적 산업은 波及효과를 유발하여 고용을 창출, 증대하여 부나 정보에 있어서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리라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위 즉, 도시로부터 아래 즉, 촌락에로의 흐름은 결국 도시의 연장을 확대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활발히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장소와 現地性(locality)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획일적인 공업화를 지향하려는 견해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일고 있으나 우리의 전통 동족공동체가 받고 있는 압력의 양상을 里단위의 촌락 수준에서 해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쇠신의 확산 등 도시로부터의 파급효과는 대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이에서는 효과

*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碩士課程 修了

** 誠信女子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教授

적으로 확산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효과가 별로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근교의 경우 물론 그같은 효과는 짙은 농도로서 파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하나의 村落이 유지 발전되어 과연 건강한 지역(gesund Gebiet)으로 조성되고 있는가를 실증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이 연구자들의 소신이다.

지역의 변화란 각각의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동성에 의해서 그 자체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는 사실은 인정되어 온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변화에 접근할 때 지역의 변화란 지역간 변화의 흐름을 창출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회 변화의 동인이면서 사회 변화 그 자체인 사람에 대한 기술은 어느 지역의 사회 구성에 대한 해명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 의식에 토대하여 이 연구는 수도권 근교인 京畿道 廣州郡 實村面 下悅美里 綾城具氏 同姓村의 形成과 公업입지 形成에 의한 사회구조 변화 과정의 여러 특징들을 개인의 生活史分析을 토대로 해부학적으로 기술하여 脫農化의 성격과 방향을 가늠하여 보려 하였다.

2) 研究方法

지역 변화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서울과의 연계성(linkage), 그와 관련하여 형성된 公업입지, 또 그에 의하여 흡인된 유입인구집단, 그리하여 결과된 촌락 사회의 이질화라는 줄거리를 따라 고리를 연결하여 보려하였다. 종국적으로 이 이질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들춰내기 위한 여러 분석, 기술상의 절차를 선정하였다. 원래의 조사에서는 동성촌 형성 과정도 심도있게 추적하였으나 이 연구의 핵심을 고정하기 위하여 그 부분은 대폭 삭제하여 구성하였다.

변화와 이질화의 기술을 위하여 이 지역 公업구성과 인구 구성 및 이주, 주거, 직업 특성 분석에 주력하였으며 실제 조사에서는 경관구성, 면담, 이미지 형상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주거 및 직업 경력 등을 기술하는 방법으로써

生活史 분석을 하였으며 대상은 74가구의 표본으로 하였다. 집단 유형을 유별한 후 이들 특성들을 대립적으로 평가하여 변화의 방향과 의미를 끌어내도록 하였다. 이용된 자료는 하열미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실촌면 公장현황조사서, 실촌면 토지과세내역서 등이다.

2. 村落의 地域構成과 形成過程

1) 지역구성

(1) 지역의 연계

연구지역인 實村面 下悅美里는 京畿道 廣州郡의 남동부, 서울에서 직선거리 약 40km의 근거리 내에 있어 首都圈내의 서울 大都市圈 外郭地域에 위치한다. 中部高速道路와 京忠國道에 근접하여 있는 위에 이들과 직접 연결되는 昆池岩~楊平을 잇는 329番 地方道가 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이들을 이용할 때 서울과는 불과 30~40분내외의 時間-距離가 소요되는 유리한 접근성을 지닌다.

전형적인 전통적 同姓村으로 형성되어 온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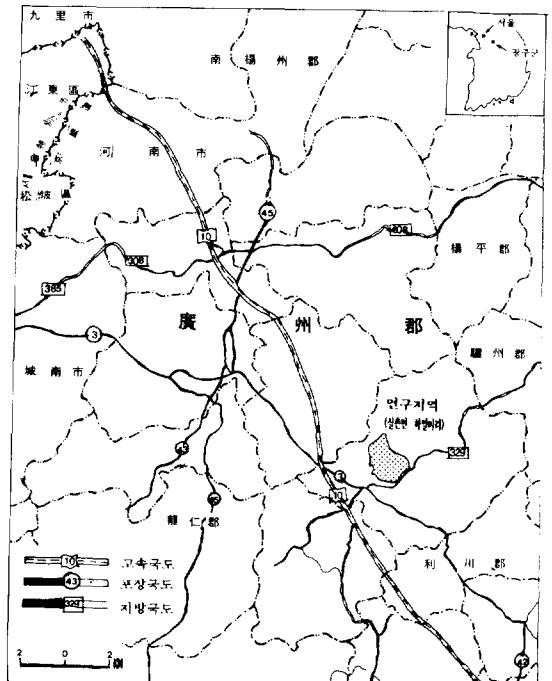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京畿道 廣州郡 實村面 下悅美里)

촌락이 1970년대 말 이래 새로운 공업입지의 형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소규모 집중과 도시 인구의 전입을 유발하여 사회-경제적 변동을 경험하게 된 것은 우선 수도권에 입지하여 유리한 서울로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는 입지적 유리성 때문이다.

悅美里는 행정구역상 上悅美里와 下悅美里로 나뉘는데(1967.7.1. 행정구역 개편), 下悅美里는 綾城具氏 同族社會集團이 入鄉始祖로부터 지금까지 약 400여년에 걸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여왔고, 1993년 5월 현재 촌락을 구성하는 전체 203가구 중 綾城具氏가 56가구를 차지하여 약 28%의 同族率을 보여주고 있다.¹⁾

(2) 토지이용과 경지소유

토지이용의 구성면을 보면, 임야 333.31ha (86.5%), 밭 40.6ha(10.5%), 논 11.6ha(3.0%)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논 면적이 협소한 편이다.²⁾

경지는 昆池岩川을 따라 윗마을이 마을 입구에 '보들'과 '은대미들'과 같은 꽤 넓은 논과 밭의 발달을 보이는데 반해 아랫마을은 밭의 분포가 탁월하고 공장부지도 주로 아랫마을에 조성되어

있다.

마을내 綾城具氏 소유경지를 필지수별로 보면, 밭이 29필지이고 논이 23필지로 논밭을 합하여 모두 52개 필지로 되어 있으며 이는 下悅美里 전체 79개 필지의 65.8%를 차지한다.

여타의 동성촌과 마찬가지로 하열미리도 농업적 생산기반 위에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으나 1979년 이후 타성의 토지점유가 시작되고 아랫마을 중심으로 토지용도가 공장용지로 변경되면서 매우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능성구씨 소유의 경지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 綾城具氏 동성촌의 형성

이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下悅美里의 능성구씨는 조선조에 議政府左贊成을 지낸 成老를 현조로 하는 都元帥公의 후손들로서 수도권내에 위치하면서도 비교적 血緣的 地緣共同體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1993년 현재 하열미리를 중심으로 그에 인접한 삼리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구씨들은³⁾ 대부분 도원수공파의 후손들이다.

하열미리로의 능성구씨 동족사회집단의 입식 추정 년도는 약 400년 전이며, 가장 윗대의 분묘는 8世 揚의 것이나 실제 최초의 入鄉祖는 14世 理淵으로 그가 임진왜란시 난을 피해 선대 묘소가 있는 하열미리로 솔가해 낙향한 것이 거주시작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래 8世 揚의 선대는 開城 墨寺洞에 거주하였고 그의 아들 9世 致寬, 致明, 致平, 致洪의 네 형제는 中壘面 二里 夢村洞(現 江東區 二洞 올림픽공원내 銀杏洞)에 살았다고 한다.⁴⁾

동촌에서 열미리로의 능성구씨 동족사회집단의 최초 입향 동기에 대해서는 9세 치관과 관련한 賜牌地說이 대부분의 자손들에 의해 믿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인 즉, 세종의 묘를 천거할 당시 묘 터로서 지금의 영릉이 위치한 麗州와 이곳 열미 지역이 거론되었지만 열미의 朝山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여주가 영릉의 자리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열미의 터가 風水地理上 明堂이었기에 그 당시 世祖에게 신망이 두터웠던 9세 忠烈公 致寬에게 이 지역이 하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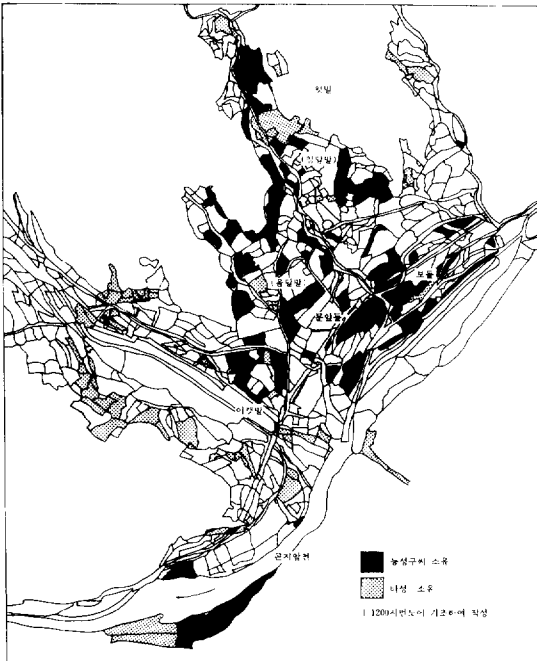


그림 2. 소유경지 분포(능성구씨와 타성)

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패지설을 뒷받침할 만한 문헌상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하얼미리 능성구서 동성촌의 형성 기원은 사패지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풍수지리상의 길지로 선택된 후 崇祖繁孫의 儒敎의 價値觀에 따라 거주지화하면서 정착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3. 村落의 工業立地 形成과 住民構成의 變化

1) 公業 입지의 형성

(1) 광주군의 공업 분포

이 연구지역이 속해 있는 광주군은 중부고속도로가 군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중부면에는 광주인터체인지, 실촌면에는 곤지암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 있어 광주군내의 대부분 지역이 국가적 간선도로망에의 접근이 양호하다. 또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의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데,⁵⁾ 광주군의 공장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五浦面(31.7%), 實村面(28.9%), 廣州邑(26.1%) 순으로 3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 보호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법이 적용되는 中部面, 南終面에는 약간의 공장이 분포하고, 退村面에는 공장이 전혀 분포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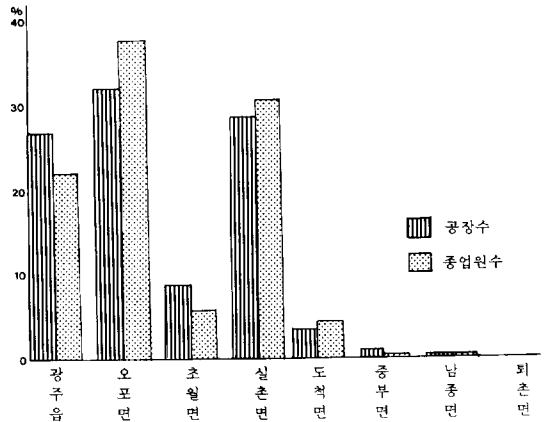


그림 3. 광주군의 면별 공장 구성비율

자료 : 광주군 공장실태조사(1992).

광주군은 영세 소기업 중심의 공업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의 79.0%에 해당하는 649개 업체가 종업원 30인 미만의 소기업이다.

실촌면 역시 소기업이 195개 업체로 전체의 82.3%를 차지하는데 대하여, 대기업은 0.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실촌면과 더불어 광주군의 공업구조가 군소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주변지역의 특성 중의 하나로 대도시의 비대화에 의하여 무계획적으로 밀려 나온 영세소기업들이 입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최희선, 1993, p. 53).

(2) 하얼미리의 공장입지 구성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하얼미리가 속해

표 1. 광주군 공장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계	
	업 체	종 업 원	업 체	종 업 원	업 체	종 업 원	업 체	종 업 원
광 주 읍	156	1,395	58	2,475	—	—	214(26.1)	3,870(24.6)
오 포 면	206	3,397	52	2,145	2	1,057	260(31.7)	5,544(35.3)
초 월 면	67	724	4	232	—	—	71(8.6)	956(6.1)
실 촌 면	195	2,208	41	2,338	1	800	237(28.9)	4,547(28.9)
도 척 면	17	187	14	547	—	—	31(3.8)	736(4.7)
중 부 면	7	51	—	—	—	—	7(0.9)	51(0.3)
남 종 면	1	13	—	—	—	—	1(0.1)	13(0.1)
계	649	7,975	169	7,739	3	1,897	821 (100)	15,717 (100)

자료 : 광주군 공장실태조사(1992).

표 2. 실촌면 공장현황 및 인구·가구수

단위: 개(%)/호, 명(%)

번호	지 역	업 체 수	종업원수	가 구 수	비 농 가	인 구 수
1	곤지암리	34(20.6)	760(15.7)	792(25.9)	706(89.1)	2,626(25.0)
2	수 양 리	13(7.9)	234(4.8)	259(8.5)	163(62.9)	859(8.2)
3	신 촌 리	2(1.2)	38(0.8)	84(2.7)	44(52.4)	327(3.1)
4	봉 현 리	4(2.4)	175(3.6)	90(2.9)	28(31.1)	327(3.1)
5	부 향 리	0(0.0)	—	84(2.7)	20(23.8)	268(2.6)
6	이 선 리	0(0.0)	—	66(2.2)	22(33.3)	203(1.9)
7	만 선 리	4(2.4)	36(0.7)	167(5.5)	115(68.9)	600(5.7)
8	유 사 리	2(1.2)	50(1.0)	83(2.7)	33(39.8)	318(3.0)
9	삼 합 리	0(0.0)	—	66(2.2)	18(27.3)	259(2.5)
10	건 업 리	1(0.6)	8(0.2)	134(4.4)	72(53.7)	473(4.5)
11	장 심 리	0(0.0)	—	72(2.4)	33(45.8)	279(2.7)
12	연 곡 리	1(0.6)	24(0.5)	89(2.9)	38(42.7)	416(4.0)
13	오 향 리	6(3.6)	177(3.7)	190(6.2)	116(61.1)	697(6.6)
14	열 미 리	25(15.2)	575(11.9)	294(9.6)	228(77.6)	963(9.2)
15	신 대 리	13(7.9)	205(4.2)	217(7.1)	190(87.6)	741(7.1)
16	삼 리	60(36.4)	2,548(52.8)	373(12.2)	311(83.4)	1,142(10.9)
계		165 (100)	4,830 (100)	3,060 (100)	137(69.8)	10,498 (100)

자료: 공장현황조사서(1993.8), 실촌면사무소.
인구현황보고서(1993.1), 실촌면사무소.

있는 실촌면은 광주군내에서도 공장의 집중이 돋보이는 지역이다. 1993년 현재 실촌면에는 165개의 업체가 들어서 있는데, 里別 업체수를 보면, 三里(36.4%), 昆池岩里(20.5%) 그리고 悅美里(15.2%)의 순이며, 釜項里·二仙里·三合里·長心里에는 공장이 전혀 입지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공업의 입지가 流入勞動力에 의존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은 공업입지수와 비농가율이 비례하고 있음을 통해서 입증된다. 里別 비농가율을 보면 부향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25% 이상의 비농가율을 나타내고 공장의 입지가 우세한 삼리, 곤지암리, 열미리와 신대리가 75% 이상의 높은 비농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공장의 분포와 비농가율의 지역적 집중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우세한 공장입지와 높은 비농가율을 보이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도로망을 따라 서울과 연결되는 서부지역으로서, 하열미리가 속해 있는 광주군 실촌면의 공업화가 서울과의 연계성에 토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실촌면 공장규모별 현황

단위: 개(%)

지 역	30인 미만	30인~300인	300인 이상	불 명	계
곤지암리	25(21.4)	8(18.6)	—	1(25.0)	34(20.6)
수 양 리	12(10.3)	1(2.4)	—	—	13(7.9)
신 촌 리	2(1.7)	—	—	—	2(1.2)
봉 현 리	3(2.6)	1(2.4)	—	—	4(2.4)
부 향 리	—	—	—	—	0(0.0)
이 선 리	—	—	—	—	0(0.0)
만 선 리	4(3.4)	—	—	—	4(2.4)
유 사 리	1(0.9)	1(2.4)	—	—	2(1.2)
삼 합 리	—	—	—	—	0(0.0)
건 업 리	1(0.9)	—	—	—	1(0.6)
장 심 리	—	—	—	—	0(0.0)
연 곡 리	1(0.9)	—	—	—	1(0.6)
오 향 리	4(3.4)	2(4.7)	—	—	6(3.6)
열 미 리	17(14.5)	7(16.3)	—	1(25.0)	25(15.2)
신 대 리	12(10.3)	1(2.4)	—	—	13(7.9)
삼 리	35(30.0)	22(51.2)	1(100)	2(50.0)	60(36.4)
계 1	117 (100)	43 (100)	1(100)	4 (100)	165 (100)
계 2	117(72.8)	43(26.7)	1(0.6)	—	161 (100)

자료: 공장현황조사서(1993.8), 실촌면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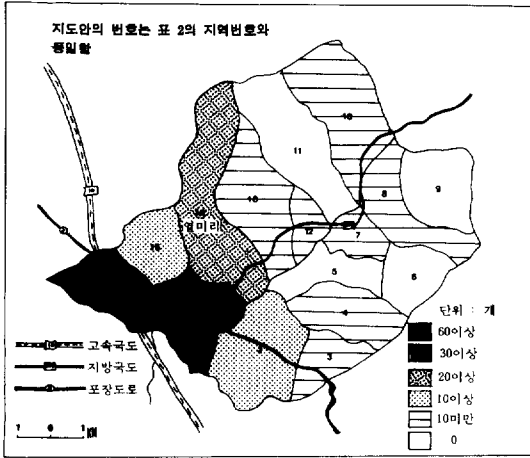


그림 4. 실촌면의 공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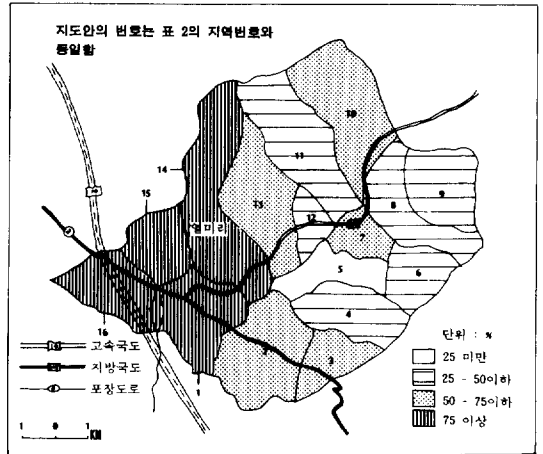


그림 5. 실촌면의 비농가용

표 4. 열미리 소재 공장현황

번호	상 호	생산품목	종업원수	공장용지	창설연도	창설지역	이입시기
1	서흥산업(주)	취사기	76	4685	68		91
2	대흥화학공업사	플라스틱	42	2200	79		79
3	우일(주)	스쿠알렌	44	—	81	열미	81
4	다다인터내셔널	책상	39	5560	85		—
5	대영(주)	조명기구	66	8688	88		—
6	평안산업사	시멘트벽돌	24	994	55	상계동	83
7	별미식품사	교추장	22	3117	71	상일동	85
8	완전식품공업사	청국장	11	2227	79	서울	—
9	삼양케미컬주식회사	필름	23	780	84		—
10	대우전선공업사	전선	22	2743	89		—
11	광일산업	천막코팅	16	3300	85	열미	85
12	우진산업	도축	54	3644	83		—
13	영부화학(주)	육묘상자	21	4093	86		—
14	영성기업	아크릴판	9	1155	86	열미	86
15	부영섬유	레이스	8	1013	87		—
16	동산식품	물엿	8	3130	85	천호동	88
17	영부바이오세라믹	bioseamic	7	—	90		—
18	삼미특수제지	화장지	13	990	81		—
19	강남산업사	브레이크액	17	4384	83		—
20	컨트리공예	경리박스	13	660	85	열미	85
21	보람가구	선반가구	15	330	89		—
22	한국 MOOG(주)	—	26	—	86	신사동	91
23	갑일공업사	화일박스	41	9900	83	열미	83
24	벵가드(주)	신발·의류	41	8801	—		—
25	유진공해산업(주)	—	4	9005	—		—

자료 : 공장현황조사서(1993, 8), 실촌면사무소.

1993년 8월 현재 실촌면은 광주군의 다른 여타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세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체의 72.8%가 종업원수 30인 미만의 소기업이고, 26.7%가 30인 이상~300명 이하의 중기업이며, 대기업의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열미리는 실촌면에서 삼리, 곤지암리에 이어 공장수가 많은 지역으로 곤지암과 양평을 잇는 329번 지방도를 따라 마을 입구에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다.

1993년 현재 열미리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수는 25개이며, 종업원수는 575명이다. 열미리에 입지하고 있는 공장들의 이입은 1979년부터 최근까지 점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초기 공장입지 시기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반으로 이는 열미리의 인구·가구수의 변화시기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공장규모 구성면에서 열미리의 공장들 역시 종업원 30인 미만의 기업의 비중이 68.0%로 영세소기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가구 및 봉제, 식품제조업 등의 오염원이 적은 생산업종

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業種別 空間分化的현상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열미리 기업들의 창립년도와 이전 공장지역을 살펴 볼 때, 서울에서도 특히 이 지역과 거리상 가까운 천호, 상일, 강동, 강남 지역으로부터의 입지이동이 많은 것이 발견된다.

2) 주민 구성의 변화

(1) 인구·가구수의 변화와 인구 특성

① 인구·가구수의 변화

광주군은 1978년을 기점으로 비농가수가 농가수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비농가수는 점증하여 1991년 현재 75.6%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이 순수 농업경영적 성격은 크게 상실되고 도시 근교의 농촌마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농가와 비농가의 混住化 현상이 광주군 지역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하열미리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이후 공업입지의 형성으로 급격한 가구수·인구수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데, 능성구씨 동족사회집단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1979년 이전의 원가구수는 약 60호 전후였으며 이 중 능성구씨가 56호, 나머지도 대부분 능성구씨와 관련된 주민들이었다. 그러나 1979년부터 공장들이 입지하면서 他姓住民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1993년 현재 전체 203가구 중 原住民 능성구씨가 56호로 27.6%, 유입한 타성주민이 147호로 72.4%로 원주민과 이입주민의 가구수의 구성비가 역전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가구수 및 인구수의 변화과정을 살펴 볼 때,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한 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5. 하열미리의 농가·비농가수의 변화
단위: 호(%)

구 분	전 체	농 가	비 농 가
1964	66	56(84.8)	10(15.2)
1965	60	49(81.7)	11(18.3)
1979	69	42(60.9)	27(39.1)
1992	209	35(16.7)	174(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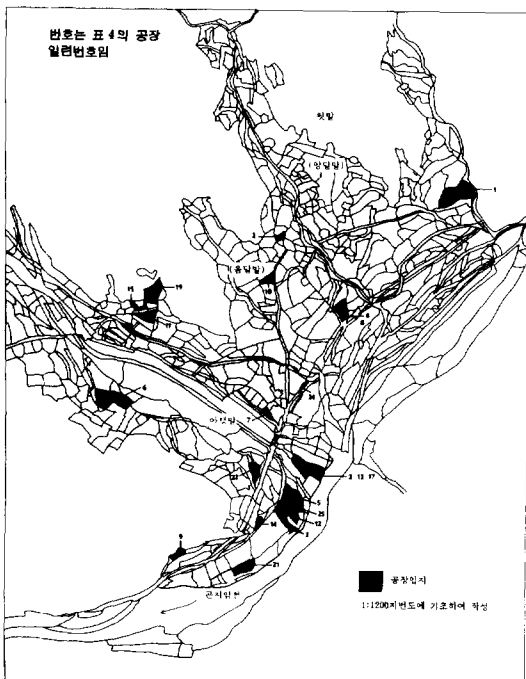


그림 6. 열미리의 공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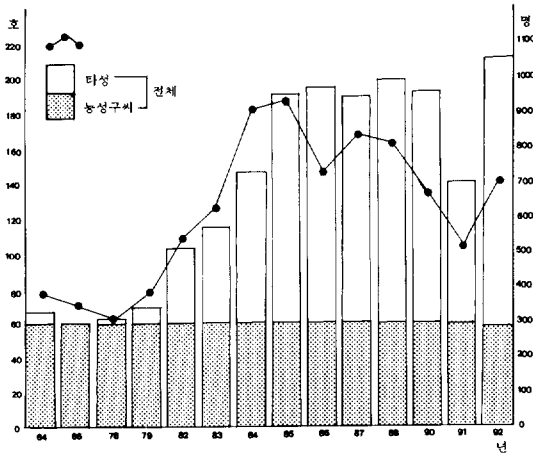


그림 7. 하열미리 인구·가구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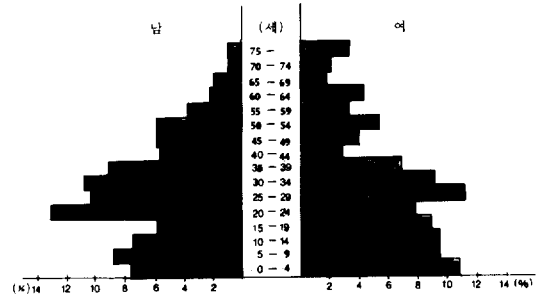


그림 8. 하열미리 인구구성

최근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다. 이는 경기 및 고용 변동에 따른 인구 이동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사실로서 수도권 특히 영세 기업의 입지가 압도적인 근교의 인구 유동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가구 및 인구의 증가와 병행하여 비농가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하여 농가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대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오던 원주민들은 1970년대 말 이후 새로운 취업기회를 맞아 脫農化와 在村賃勞動化의 과정을 가속화하여 왔으며 이리하여 비농가 비율의 증가는 탈농화와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유입민수의 증가와 결합하여 내외 양방향으로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농촌 사회의 混在化 및 異質化를 심화시켰다.

이같은 二元的 異質化 過程은 전통적인 동성촌의 경우 주민의 사회적 구성에는 물론 가치체계나 행동양식에서도 진행되어 농촌사회 갈등과 해체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임석화, 1988, p. 85).

② 인구 특성

하열미리의 인구구조는 일반농촌과는 달리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의 인구 구성비가 높다. 경제활동인구의 높은 구성비는 이 지역 공업화의 결과인데 청장년층인구의 이촌향도로 특징지워지는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농촌인구 이동의 경향과는 상반되는 인구 구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하열미리 인구의 사회적 특성상 특기할 것은 심한 인구유동 현상이다. 높은 입출빈도는 사회적 이동을 파악하기 어렵게 할 정도로 심한데, 이는 이 지역내 공장들의 영세성과 더불어 생산 기술적 노동자들의 轉職率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주민의 사회적 구성과 관련하여 이 지역 원주민인 농성구씨 가구주와 타성 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살펴 볼 때, 청장년 생산연령층 인구는 유입타성집단에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대하여 노년층 인구는 원주민집단에서 많은 것도 이 지역의 산업 구성 변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사회 변화의 양상을 뚜렷이 드러내어 준다.

표 6.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 세, 인(%)

연령	전체	농성구씨	타성
~24	6(3.0)	1(0.5)	5(2.5)
25~29	23(11.3)	3(1.5)	20(9.8)
30~34	32(15.8)	5(2.5)	27(13.3)
35~39	33(16.2)	9(4.4)	24(11.8)
40~44	18(8.9)	2(1.0)	17(7.9)
45~49	24(11.8)	5(2.5)	19(9.3)
50~54	20(9.9)	7(3.5)	18(6.4)
55~59	22(10.9)	6(4.4)	13(6.4)
60~64	10(5.0)	7(3.5)	3(1.5)
65~69	8(3.9)	2(1.0)	6(2.9)
70~74	2(1.0)	1(0.5)	1(0.5)
75~79	3(1.5)	3(1.5)	0(0.0)
80~	2(1.0)	2(1.0)	0(0.0)
계	203 (100)	56(28.0)	147(72.0)

자료 : 세대별 주민등록표(1993.5).

표 7. 타성 가구주의 전거주지역

()는 빈도

경	시부(25)	하남(5) 성남(4) 인천(5) 구리(3) 안양(2) 수원(1) 오산(1) 안산(1) 의정부(1) 미금(1) 고양(1)
기	군부(38)	광주읍(6) 곤지암(4) 만선리(2) 신대리(1) 오향리(1) 장심리(1) 남종면(1) 초월면(1) 여주(6) 파주(5) 이천(3) 남양주(3) 용인(1) 양평(1) 안성(1) 포천(1)
서울(35)		강남(4) 강동(3) 강서(2) 송파(2) 양천(2) 동대문(3) 관악(2) 구로(2) 도봉(1) 노원(1) 동작(1) 마포(1) 서초(1) 성동(4) 성북(1) 용산(1) 종로(2) 중랑(1) 영등포(1)
강원(10)		영월(4) 정선(2) 원주(1) 홍천(1) 횡성(1) 춘성(1)
충북(4)		영동(2) 옥천(1) 청주(1)
충남(5)		아산(4) 공주(1)
전북(3)		김제(1) 순창(1) 이리(1)
전남(8)		광주(1) 담양(1) 목포(1) 보성(1) 승주(1) 신안(1) 여수(1) 여천(1)
경북(4)		대구(1) 경산(1) 문경(1) 예천(1)
경남(1)		양산(1)
계(133)		

자료 : 세대별 주민등록표(1993. 5).

③ 외부유입인구의 거주이동

하열미리 지역의 공업화에 따라 유입한 타성 인구는 1993년 현재 전체 가구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거주이동 과정을 가구주의 전거주지역을 통해 살펴보았다.

타성 가구주의 전거주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지역이 63가구로 가장 많으며 그에 이어 서울, 강원, 전남 등의 순이다. 특히 전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에는 직장이동으로 인한 이주자와 노후생활을 위한 이주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강남, 강동으로부터의 이주가 많은 편이다.

서울을 제외하면 단일 시·군 단위에서는 광주군으로부터의 이주가 가장 많고, 경기도내의 시·군에서도 열미리 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시군으로부터의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단거리 이동이 주류를 이룬다.

4. 集團의 類型에 따른 職業, 所得, 住居移動의 特性

1) 촌락의 이질화와 집단 분류

촌락의 이질화란 하나의 지역 또는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구성되어 온 농촌 사회가 다양한 집단의 구성체로 변화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존

농촌지역사회의 해체를 의미한다.⁶⁾ 촌락은 지역 자체의 입지적 제조건과 지역의 구성원인 주민의 사회적 기능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이므로 이같은 농촌의 이질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 주민의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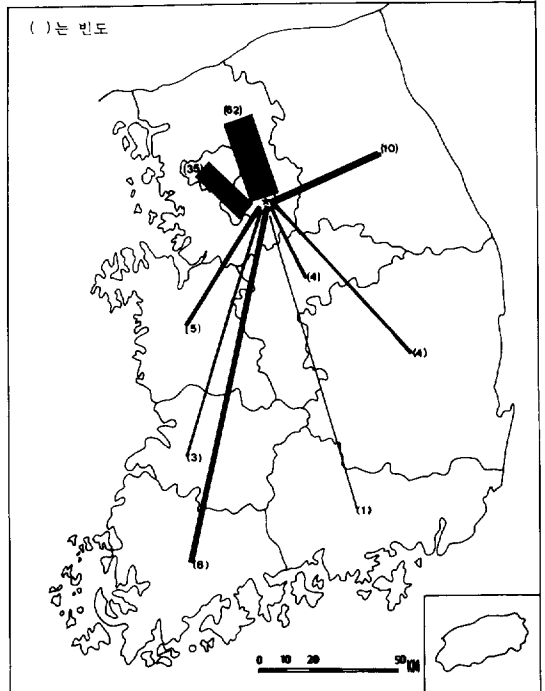


그림 9. 타성 가구주의 전거주지역 I(전국)

표 8. 가구주의 생활사를 기초로 한 집단 분류와 그 사례수^{*)}

區 分		農 家(F)	非 農 家(Fn)	計
綾城具氏 同族集團(C)	他地居住經驗	有(H)	6 10 32 <3> 5 7 9 12 13 21 24 <11>	33
		無(N)	1 2 3 4 11 14 15 17 19 22 23 27 31 <13>	
他 姓 住民集團(Cn)	轉入時期 1979	以前(B)	10 16 23 24 <4>	40
		以後(A)	<0>	
計		20	53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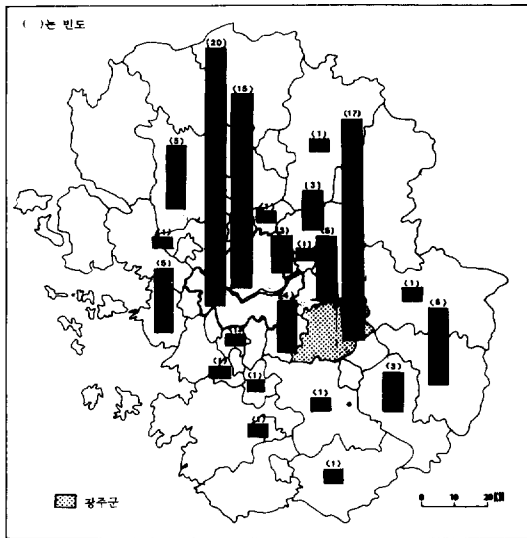


그림 10. 타성 가구주의 전거주지역 II(수도권)

성분과 입지 선택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주민의 집단 유형별로 개개 구성원의 생활사를 추적하여 몇가지 사회적 특성들을 기술하였다.⁷⁾

주민의 집단분류는 일차적으로 능성구씨 동성 집단과 타성 이입집단으로 구분하고, 이차적으로 농가/비농가, 전입시기, 타지거주경험유무를 토대로 세분하여 모두 8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 CFH 그룹 : 타지거주경험이 있는 능성구씨 농가
- CFnH 그룹 : 타지거주경험이 있는 능성구씨 비농가
- CFN 그룹 : 타지거주경험이 없는 능성구씨 농가
- CFnN 그룹 : 타지거주경험이 없는 능성구씨 비농가
- CnFB 그룹 : 1979년 이전에 전입한 타성주민 농가
- CnFnB 그룹 : 1979년 이전에 전입한 타성주민 비농가
- CnFA 그룹 : 1979년 이후에 전입한 타성주민 농가^{*)}
- CnFnA 그룹 : 1979년 이후에 전입한 타성주민 비농가

2) 일차적 분류에 의한 주민집단의 특성

(1) 인구 구성

원주민인 능성구씨 동성집단과 이주민인 타성 주민집단으로 구분한 일차적 분류에 따라 생활사 채집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능성구씨 동성집단 가구주의 연령은 40~50대에 두터운 층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타성 주민집단의 가구주는 20~30대에 집중되어 있다.

표 9. 생활사 채집 대상자의 연령

단위 : 세, 명(%)

年 齡	綾城具氏	他 姓	比 考
~29	2(5.9)	8(20.0)	
30~39	6(17.6)	16(40.0)	20, 15=妻=具氏
40~49	8(23.5)	9(22.5)	1=母=具氏
50~59	9(26.4)	4(10.0)	
60~69	5(14.7)	3(7.5)	24=母=具氏
70~	4(11.8)	0(0.0)	
計	34 (100)	40 (100)	해당번호=他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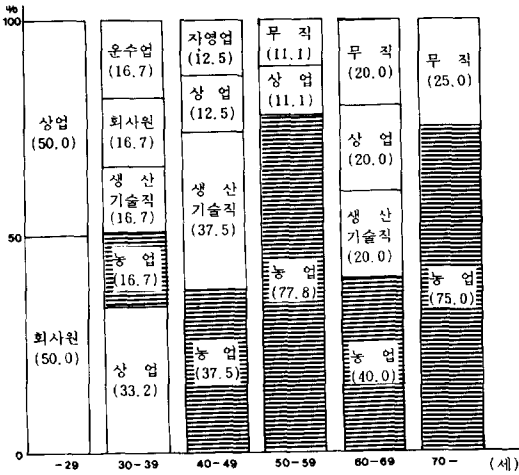


그림 11. 연령별 직업특성(능성구씨 동성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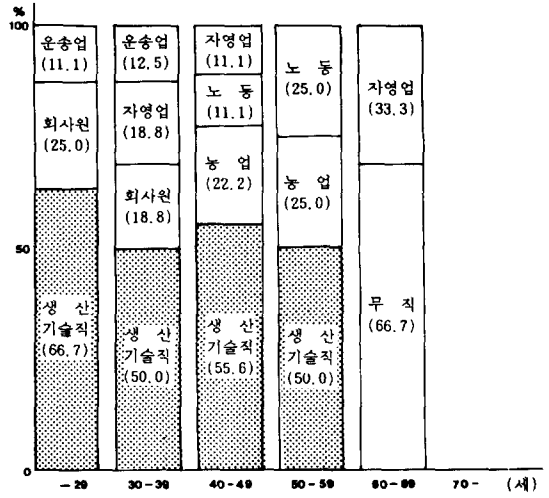


그림 12. 연령별 직업특성(타성 주민집단)

이는 타성 주민집단이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40~50대를 중심으로 연령층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능성구씨 동성집단은 60세 이상의 노년층 가구주가 타성 주민집단에 비해 두드러져 일반 농촌에서 나타나는 가구주의 노령화 현상을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원주민 가구주가 농업을 생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다음 능성구씨 동성집단과 타성 주민집단의 직업형태를 비교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능성구씨 동성집단이 농업종사자에 그리고 타성 주민집단은 생산기술직에 집중하고 있어 두 집단의 성격을 구분짓는 지표적 요인 중의 하나를 이룬다.

그러나 원주민 집단에서도 일반 농촌과는 달리 상업이나 사무직 또는 생산기술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 집단의 20, 30, 40대층에서는 이같은 비농업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오히려 농업종사자 구성비를 증가하고 있다.

(2) 학력, 직업, 소득의 특성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학력·직업·소득을 선택하여 기술하였다. 우선 학력별 특성을 살펴 볼 때, 능성구씨 동성집단에서는 국졸 이하의 농업종사자(35.3%)가 가장 많으며, 고졸 이상에서는 상업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반면 타성 주민집단은 고졸의 생산기술직 종사자(27.5%)의 비율이 가장 높고 대졸 이상을 제외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생산기술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주민집단의 소득특성에서는, 능성구씨 농업종사자의 경우, 19만원~149만원의 넓은 소득 영역에 걸쳐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는 월 50~59만원 이하의 소득 수준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19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타성 주민이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생산기술직은 월 30만원 이상의 수준에서 고른 소득 분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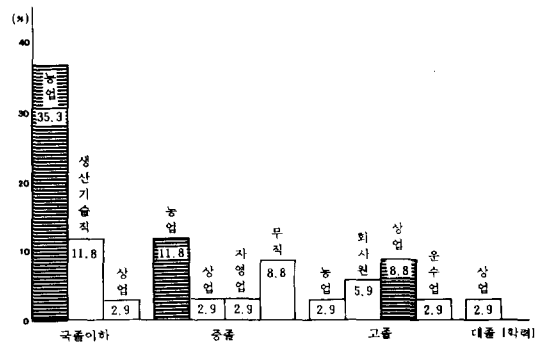


그림 13. 학력별 직업특성(능성구씨 동성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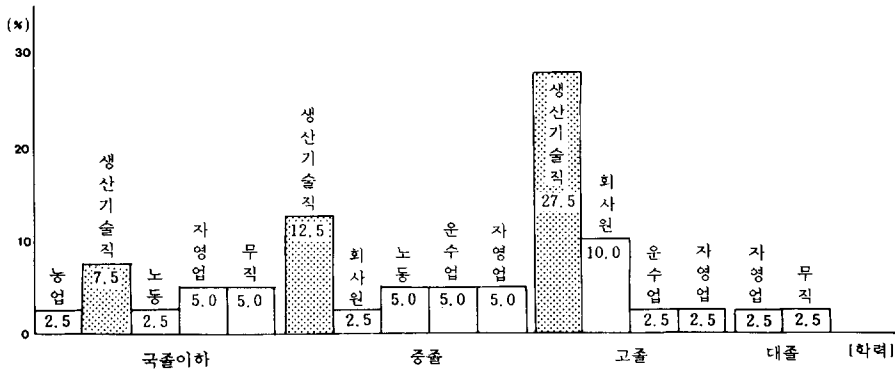


그림 14. 학력별 직업특성(타성 주민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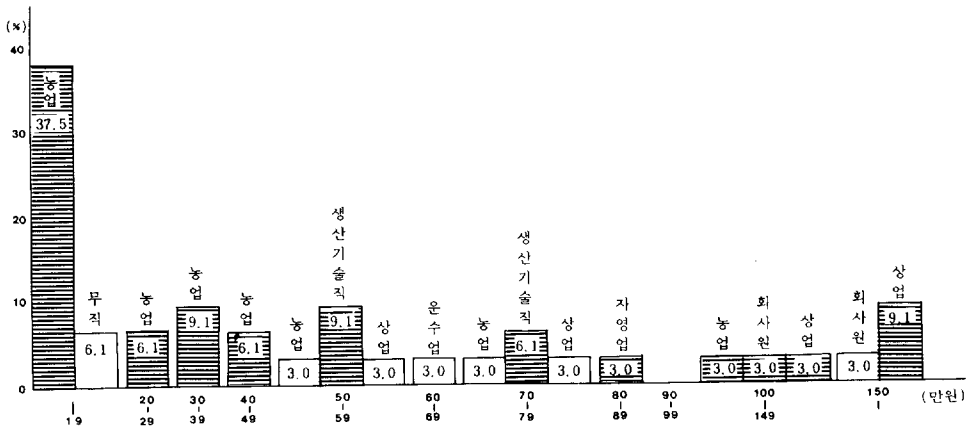


그림 15. 소득별 직업특성(능성구씨 동성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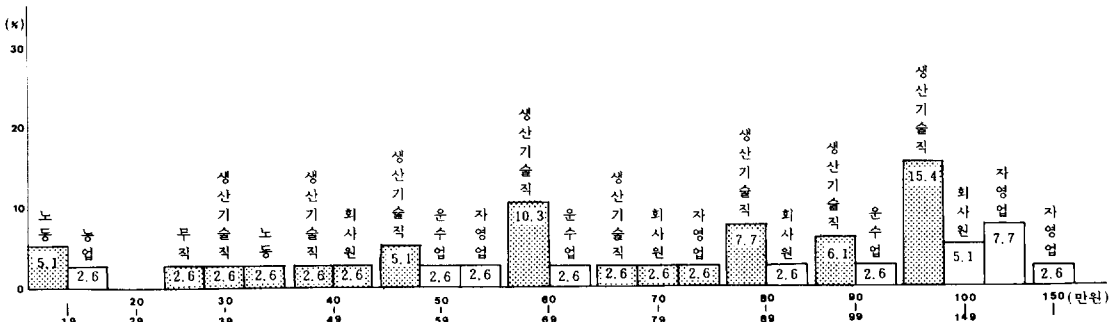


그림 16. 소득별 직업특성(타성 주민집단)

보이며, 대체로 원주민보다는 높은 소득분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비농업직의 소득 분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상업종사자 모두가 원주민이며, 타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월 150만원 이상의 고소득 분포를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하는 상업종사자가 모두 원주민인 능성구

씨 동성집단이고 타성주민의 경우가 발견되지 않는 것 그리고 종사자 중 타지거주 경험이 있는 가구주가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는 생산기술직과 마찬가지로 타성 주민집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역시 월 100~149만원의 고소득 분포를 보이고 있다.

(3) 가족 구조

우리의 일반 농촌이 겪고 있는 인구 변화의 큰 특징은 청장년층의 유출현상과 그로 인한 농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및 핵가족화 경향이다. 즉 전통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직계 대가족제의 가족형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산업화의 과정에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농가인구가 빠른 속도로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함으로써 종래의 가족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반 농촌의 가족구조 변화 양상 중 가구주의 노령화 현상은 이 연구 지역의 경우 농업을 생계기반으로 삼고 있는 능성구씨 동성집단 가구에 발견된다. 다시말해 능성구씨 동성집단의 농업종사자 중 75.0%가 50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농업노동력이 노령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1세대 가족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2세대 가족원이 비농업직에 취업하는 세대 간의 분업이 이뤄지고 있으며(박민선, 1989, p. 329), 이 같은 현상은 능성구씨 주민 중 20~30대 층의 비농업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하열미리와 같은 도시근교의 농촌에서는 취업을 위한 진출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원주민들이 임노동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차적으로 구분한 두 그룹은 가족 구조에 있어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데 우선 비동거가족을 포함한 가구원수를 비교해 보면, 능성구씨 가구는 6명 이상의 가구원수를 가진 경우가 5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타성주민집단은 4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32.5%로 주를 이루고 있어 원주민인 능성구씨 동성집단의 가구 규모가 타성주민집단에 비해 크다.

또한 산업화와 더불어 미혼청소년을 주축으로 한 가족원이 분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에 진출함으로써 가족원이 분산거주하는 사례가 농촌의 일반적인 현상인데(박민선, 1986, pp. 1-4) 하열미리 지역의 두 그룹은 모두 비동거가구원수

표 10. 사유별 출타사유

()는 빈도

사유	출 타 지 역				계
직장	서울(3) 장항(1)	성남(3) 광주시(1)	수양리(1) 창원(1)	이천(1)	11
학업	대 학 교			고등학교	7
	서울(1) 청주(1)	인천(1) 천안(1)	대전(1) 원주(1)	구리(1)	

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각각 64.7%, 92.5%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반 농촌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농가중심인 원주민과 비농가중심인 이입자들 간에 큰 차를 보이며 1명 이상의 비동거가구원을 가진 경우가 각각 35.3%, 7.5%로 역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한편 비동거가구원의 연령층은 21~25세의 남자 가구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의 출타는 직장, 군입대, 학업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사유별 지역을 보면 직장으로 인한 경우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과 인접 지역이며, 학업으로 인한 경우는 서울, 인천 등의 경기 지방과 충청·강원 지방이 속한다.

3) 이차적 집단의 거주형태 및 거주·직업 경력

(1) 주거점유형태

2차적으로 구분한 8개 하위그룹의 주거점유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택소유, 월세, 전세의 순이다. 먼저 자택소유의 경우 원주민인 능성구씨 동성사회집단이 농가/비농가 그리고 타지거주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높은 자택점유율을 보이고 있다(CFN, CFnH 집단).

다음 전세의 경우는 타지경험이 있는 구씨집단(CFnH)과 1979년 이후에 전입한 타성 비농가 집단(CnFnA)에서 나타나며, 월세는 1979년 이후에 전입한 타성 비농가집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세보다 월세의 비율이 높다.

자택을 소유한 능성구씨 동성집단 그룹이 외부 유입인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이입타성 비농가그룹(CnFnA)에 월세로 주택을 임대(1개 이상의 방을 임대한 경우 : 34.4%)하여 소득

표 11. 그룹별 주거점유형태

단위 : 호(%)

區 分	自宅所有	傳 賃	月 賃
CFH	3(7.0)	0(0.0)	0(0.0)
CFnH	9(20.9)	1(11.1)	1(4.8)
CFN	13(30.2)	0(0.0)	0(0.0)
CFnN	6(14.0)	0(0.0)	0(0.0)
CnFB	4(9.3)	0(0.0)	0(0.0)
CnFnB	3(7.0)	0(0.0)	0(0.0)
CnFA	0(0.0)	0(0.0)	0(0.0)
CnFnA	5(11.6)	8(88.9)	20(95.2)
계	43(100)	9(100)	21(100)

표 12. 자택소유자의 임대 가구수

단위 : 개, 호(%)

區 分	綾城具氏	他 姓
0	21(65.6)	10(76.9)
1~3	4(12.5)	2(23.1)
4~6	3(18.8)	0(0.0)
7	1(3.1)	0(0.0)
계	32(100.0)	13(100.0)

원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또한 1979년 이전에 전입한 타성 농가(CnFB) 비농가와 (CnFnB)그룹의 주민 모두가 자택을 소유한 반면에 1979년 이후에 전입한 타성 비농가 그룹은 대부분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데, 는 1979년을 기점으로 하여 타성 주민집단 구성 원의 주택점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 거주직업 경력

거주경력과 직업경력을 토대로 8개 집단 구성 원 개개 가구주의 생활사를 추적하여 거주이동과 직업변화의 과정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CFH그룹(타지거주경험이 있는 능성구씨 동성 집단 농가)

『보기』 가구주 고유번호-거주지(직업)→(변화)		
6-열미(공무원)	→서울(공무원)	→열미(공무원→농업)
10-열미(농업)	→삼리(농업)	→열미(농업)
32-열미	→서울(비농업직)	→열미(농업)

그림 17-1. CFH그룹의 거주-직업경력

3개의 사례 모두 열미 출생으로 20대 초반에 직장의 위치 혹은 거주지 변화로 타지거주경험을 하였다. 대체로 본촌에서의 최초 직업이 이주 지역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되다가 다시 돌아온 후 농업으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CFnH그룹(타지거주경험이 있는 능성구씨 동성 집단 비농가)

2사례만 제외하고 모두 본촌 출생이며, CFH 그룹에 비해 거주이동과 함께 직업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타지거주시의 직업이 본촌으로 돌아온 뒤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열미(공무원)→평북(관리직)→서울(공무원)→열미(공무원→농업)
7-열미→서울(상업)→열미(운수업)
9-열미→서울(사무직)→열미(생산직→상업)
12-열미→경기도 군포(회사원)→열미(상업→회사원)
13-열미→경기도 양평(운수업→상업)→열미(상업)
21-열미(농업)→서울(생산기술직)→열미(생산기술직)
24-부합리(농업)→서울(생산기술직)→열미(생산기술직)
26-열미(농업)→서울(생산기술직)→열미(상업)
28-열미→서울(학업→상업)→열미(상업)
29-열미→경남 거제(회사원)→열미(회사원)
30-서울(생산기술직)→열미(자영업)

그림 17-2. CFnH그룹의 거주-직업경력

CFN그룹(타지거주경험이 없는 능성구씨 동성 집단 농가)

모든 가구주가 열미에서 출생하여 곧지암 소재 최종학교(국졸 또는 중졸)를 졸업한 이후 직업의 변동없이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80년 초반부터 농한기를 이용해 열미 소재 공장에 취업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CFN-11, 15, 19, 23은 배우자가 최근들어 공장에 취업하였다.

1, 2, 3, 4, 11, 14, 15, 17, 19, 22, 23, 27, 31-열미(농업)
--

그림 17-3. CFN그룹의 거주-직업경력

서울 近郊 傳統 農村의 變化

CFnN그룹(타지거주경험이 없는 능성구씨 동성 집단 비농가)

모두 본촌 출생이며, 한 사례만 제외하고 모두 최초의 직업이 농업이었으나, 현재는 비농업직으로 전환하였다. 직종은 생산기술직과 상업 둘로 나뉜다.

- 8-열미(농업→생산기술직)
- 16-열미(농업→상업)
- 18-열미(공무원→농업)
- 20-열미(농업→생산기술직)
- 25-열미(농업→상업)
- 33-열미(농업→생산기술직)

그림 17-4. CFnN그룹의 거주-직업경력

CnFB 그룹(1979년 이전에 전입한 타성주민 농가)

한 사례만을 제외하고 모두 본촌 출생이며, 최초 직업인 농업이 그 사이 변화없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고 하남(신장) 출생자만이 축산을 겸하고 있다.

- 10-열미(농업)
- 16-하남(농업)→열미(농업→농업+축산)
- 23-열미(농업)
- 24-열미(농업)

그림 17-5. CnFB그룹의 거주-직업경력

CnFnA 그룹(1979년 이후 전입한 타성주민 비농가)

생활사 채집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다. 현재의 직업을 기준으로 다시 구분지어, 직업변화와 거주이동과의 상호관계를 살펴 보았다.

생산기술직 종사자

CnFnA그룹에 속한 가구주의 현재 주된 직업은 대부분 고향이나 타지에서 최초로 시작한 직업(생산기술직)과 동일하다. 즉 최초 직업의 변화없이 단지 여러 차례 거주지 이동을 경험하였고 열미로의 전입 과정을 보면, 고향에서 직접 열미로 유입한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

도 지역을 거쳐 열미로 전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2-전남 함평(생산기술직)→성남→서울→열미
- 3-경기도 가평→서울(생산기술직)→열미→서울→경기 남양주→충북 진천→경기 포천→충남 홍성→열미
- 8-경기 이천→경기 여주→열미(생산기술직)
- 12-경북 영풍(생산기술직)→경기 남양주→열미
- 14-강원 홍천(생산기술직)→인천→열미
- 17-충남 연기→서울(회사원)→충남 연기(사업)→열미(생산기술직)
- 18-강원 홍천→서울(생산기술직)→열미→인천(사업)→열미(생산기술직)
- 21-전남 목포→과천→전남 목포(생산기술직)→경기 구리→열미
- 22-강원 홍천(생산기술직)→경기 하남→열미
- 25-전남 화순(생산기술직)→서울→초월면 용수리→열미
- 27-전북 군산→서울(생산기술직)→열미
- 29-충남 매산(생산기술직)→서울→열미
- 35-전남 무안→서울(생산기술직)→성남→열미
- 39-서울(생산기술직)→성남→열미
- 40-충북 제천(생산기술직)→열미

그림 17-7. CnFnA그룹 생산기술직 종사자의 거주-직업경력

자영업자

5개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 거주하면서 익힌 생산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열미로 전입하기 직전 또는 전입과 동시에 자영업을 시작하고 있는 점이다.

- 4-전남 신안→목포(?)→서울(?)→열미(자영업:관광업)
- 11-충남 대덕→서울(회사원→자영업)→열미
- 15-전남 나주(생산기술직)→성남→서울→초월면 용수리→열미(자영업)
- 31-전북 고창→서울(생산기술직)→열미(생산기술직→자영업)
- 33-전남 무안→서울(생산기술직)→성남(자영업)→열미

그림 17-8. CnFnA그룹 자영업 종사자의 거주-직업경력

회사원

5개의 사례가 모두 최초 직업(회사원)의 변화없이 거주지의 이동만을 보인다.

- 6—충남 아산(?)→인천(?)→열미(회사원)
- 9—경기 퇴촌(회사원)→열미
- 28—열미→부산(회사원)→열미
- 30—충남 공주(회사원)→열미
- 38—전남 신안→목포(회사원)→경기 안성→열미

그림 17-9. CnFnA 그룹 회사원의 거주—직업경력

운수업 종사자

3개의 사례 2개의 경우는 거주지 이동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직업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 13—강원 홍천(운수업)→만선리→열미
- 20—전남 고흥(운수업)→전남 보성→열미
- 34—충북 보은(생산기술직)→인천(운수업)→열미

그림 17-10. CnFnA 그룹 운수업 종사자의 거주—직업경력

노동자

2개의 사례 모두 생산기술직에서 노동적으로 직업의 하향을 보이고 있다.

- 전남 강진(생산기술직)→서울(노동)→만선리→열미
- 강원 홍천→열미(생산기술직→노동)

그림 17-11. CnFnA 그룹 노동자의 거주—직업경력

이상에서 8개로 구분한 하위집단별로 거주이동과 직업변화를 연계하여 살펴 보았다. 원주민(C그룹)은 타지거주경험이 없는 농가(CFN그룹)의 경우 거주지와 최초 직업(농업)이 모두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타지거주경험이 있는 비농가(CFnH그룹)는 본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도시로 이주하여 생산기술직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열미로 다시 돌아와 생산기술직에 계속 종사하는 사례가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상업종사자의 경우 모두 타지경험이 있는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원주민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직업 변화의 회수가 거주지 이동회수를 앞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에 비해 이주민(Cn그룹)의 경우는 대부분

생산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원주민에 비해 거주이동의 회수가 많지만 최초 직업이 큰 변동없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주민의 경우 나타나는 빈번한 거주이동은 직종이 변화가 아닌 직장이동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結 論

우리 나라의 다른 동성촌락과 마찬가지로 이농성구씨 동성촌의 형성 내력도 풍수지리설과 관련되어 있다. 명문족의 위세와 그러한 입지과정은 밀접히 연관된다. 60여 가구 중 56가구의 동성집단으로 구성되었던 이 촌락도 1979년 이후 공장들이 입지하기 시작하면서 인근 지역과 서울로부터의 생산기술직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이입민이 유입된다. 그리하여 1993년 현재 총 203가구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동성집단의 비율은 28%에도 미달하는 정도로 낮아졌다.

광주군 및 이 하열미리는 여러 수준의 도로의 접속 및 연결이 원활하여 서울과의 연계성에서 유리한 입지 이익을 향유한다. 그리하여 광주군 내에서도 공업의 입지의 주로 이들 연계성에 토대하여 이들 도로변에 집중하여 있으며 입지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광주군내의 공장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써 30인 이하의 영세 공장이 광주군 및 실촌면에서는 80%, 하열미리의 경우 68%의 비율을 차지한다.

원주민 집단에서도 제 2세대 이하 가족원인 20, 30, 40대 연령층에서는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극히 낮고 상업, 생산기술직, 회사원,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농 비율이 높다. 이들의 경우 在村賃勞動者化한 것이다. 이입 타성집단은 생산기술직에의 종사자가 대부분이며 그것은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난다. 물론 농업에의 종사자는 모두 원주민 집단이다.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두 집단간의 차이는 뚜렷하여 원주민 집단에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입민 집단에서는 청장년 인구비가 높는데 촌락 전체적으로도 청장년층 인

구 구성비가 높아 일반 촌락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동성 원주민 집단은 가족 규모가 이입민 집단보다 크며 별거가구원의 비율도 동성 집단에서 높다. 이입민 집단의 전거주지 비율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이며, 강원, 전남 등이 이에 따른다. 경기도내에서도 광주군 인근의 군부 및 시부가 많다. 특히 타성 이입민 집단에서의 전출입 빈도가 높는데, 이는 공장들의 영세성과 더불어 원래 생산직 기술자의 전직률이 높은 직업 특성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원주민 집단에서는 최초의 농업으로부터 비농업적 직업으로의 전직이 많아 거주 이동보다는 직업 이동이 많은데 대하여 이입민 집단에서는 직업 이동은 거의 없고 거주지 이동이 빈번하다.

소득과 직업 구성을 하나로 묶어볼 때, 원주민집단에서는 인구 구성상 50대 국졸이하, 19만원 이하 소득의 농업종사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대하여 이입민 집단에서는 30대 고졸, 30만원 이상 생산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 촌락의 경우, 입지한 기업들은 대체로 도시내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영세 기업이며 따라서 고용 규모도 크지 않다. 이들 제조업에 고용되는 소수의 노동자의 대부분도 外地에서의 이입민이므로 제조업의 입지 형성이 촌락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주민의 이입민에 대한 주거임대 수입이 있겠으나 이 지역의 위치나 환경으로 보아 큰 몫을 하기는 어렵겠다.

서울 근교라는 입지상의 특수성과 결부하여 볼 때 이 촌락은 도시지향 산업의 주변적 입지로 희생되어 자체로서 건강한 지역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投稿 1994년 8월 14일)

註

1) 실촌면 능성구씨 분포

(단위: 호, %)

지 역 (리)	총가구수	능성구씨 가구수	동족률
하열미	203	56	27.6
삼 1	204	21	10.3
삼 2	180	10	5.6

자료: 세대별 주민등록표(1993.5).

2) 하열미리 토지이용 구성

(단위: ha, %)

총면적	논	밭	임 야
385.5	11.6	40.6	333.3
100.0	3.0	10.5	86.5

자료: 실촌면사무소(1993.1).

3) 실촌면 능성구씨 분포

(단위: 호, %)

지 역 (리)	총가구수	능성구씨 가구수	동족률
하열미	203	56	27.6
삼 1	204	21	10.3
삼 2	180	10	5.6

자료: 세대별 주민등록표(1993.5).

4) 광주문화원, 1992, 광주문화, 3, 49-59.

5) 광주군 공업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1981년	1991년	증감률
공 장 수	551	821	+49.0%
종업원수	11,343	17,531	+54.6%

자료: 광주군 통계연보(1982, 1992), 광주군청.

6) 경제기반인 농업경영의 차별화로 인한 농가의 분화를 일원적 이질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이원적 과정은 기존 농가의 분화와 더불어 외부 지역 특히 대도시와의 상호연계성을 통한 보다 복합적인 변화 과정을 뜻한다.

7) 1993년 6월~9월 기간 중 가구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생활사를 채집하였다.

8)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며, 임의로 추출된 74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그룹에 해당하는 번호는 가구주의 고유번호이며, < >는 각 그룹별 총가구수이다.

농가/비농가의 구분은 주민의 현재 직업에 기초한 것이다.

채집된 생활사는 74사례이나 이 중 기타에 해당하는 1가구는 집단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 9) 생활사 채집과정에서 이 그룹에 해당하는 가구수가 발견되지 않아 실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그룹명 약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구성한 것이다. C=Clan, Cn=non Clan, F=Farm, Fn=non, Farm H=Have, N=have No, B=Before, A=After

文 獻

- 高濟承, 1977, 韓國村落社會史, 一志社.
 廣州郡, 工場實態調查(1992).
 廣州郡誌 編纂委員會, 1990, 廣州郡誌, 京仁日報.
 廣州郡, 統計年譜(1962~1992).
 廣州文化院, 1992, 廣州文化.
 農村經濟研究院, 1991, 村落 및 農村構造 變遷에 관한 研究.
 綾城具氏大宗會, 1987, 綾城具氏大世譜.
 綾城具氏大宗會, 1989, 綾城具氏文獻錄(上·下).
 綾城具氏大宗會, 1992. 3. 16., 綾城具氏宗報, 96.
 文瑄稀, 1991, “서울市 周邊地域의 住民 特性에 관한 研究”, 地理教育論叢, 15, 99-123.
 문팔용 · 반성환 · D.H. 퍼킨스, 1985, 韓國의 農村開發, 韓國開發研究院.
 朴敏善, 1986, “農村家族構造의 變化와 農業生産”, 農協調查月報, 31-12, 農協中央會, 1-13.
 _____, 1989, “農村人口의 變化와 그 特性—地帶別 接近을 中心으로—”, 農協調查月報論集, 5, 326-342.
 實村面 工場現況調查報告書(1993. 8).
 實村面 世帶主別住民登錄表(1993. 5).
 實村面 人口現況調查報告書(1993. 1).
 實村面 地域特性(1990).
 實村面 土地課稅內役書(1992).
 梁會水, 1967, 韓國 農村의 村落 構造, 高麗大亞細亞問題研究所.
 유철인, 1990, “生涯史와 신세타령—資料와 text의 問題—”, 文化人類學, 22, 301-308.
 柳右益, 1981, “農村人口의 都市指向移動이 農村地域에 미치는 影響”, 地理學論叢, 8, 33-43.
 李文種, 1994, “同族村의 人口移動과 村落의 變貌”, 地理學, 30, 77-89.
 李樹健, 1984, 韓國中世社會史 研究, 一志社.
 李昌基, 1976, 同族集團의 變化에 관한 研究, 高麗大大學院 社會學科 碩士學位論文.
 _____, 1991, “韓國 同族集團의 構成原理”, 農村社會, 1, 韓國農村社會學會, 48-50.
 任錫會, 1988, “工業園地 周邊農村의 住民構成과 特性에 관한 社會地理學的 研究”, 地理學論叢, 13, 83-97.
 鄭起煥, 1988, 韓國의 農村, 서울大學校 出版部.
 曹永國, 1991, 農村地域의 性格變化와 農家の 家口形態에 따른 農業經營의 性格에 관한 研究, 서울大大學院 地理學科 碩士學位論文.
 崔基燁, 1986, 韓國村落의 地域的 展開過程에 관한 研究, 地理學研究報告, 14, 慶熙大學校.
 崔基燁 外 3人, 1992, “우리나라 村落環境의 綜合的 診斷研究”, 應用地理, 15, 1-142.
 崔洋夫, 1985, “韓國社會의 産業化와 傳統農村의 解體: 韓國農村에 대한 認識의 틀을 위한 試論”, 文化人類學, 19, 121-151.
 崔洋夫 · 李正煥, 1989, 産業社會의 農村開發戰略—새로운 農村地域 綜合開發 方式의 選擇—, 韓國農村開發研究院.
 崔嬉善, 1993, 大都市 周邊 農村地域의 定住體系에 관한 研究—京畿道 廣州郡을 事例로—, 梨大大學院 社會教育學科 碩士學位論文.
 韓國姓氏大觀, 1973, 創造社.
 吉田充宏, 1990, “都市近郊「農村」のにする社會地理學的 研究”, 人文地理, 42-1, 653-675.
 善生永助, 1935, 朝鮮의 聚落, 朝鮮總督府.
 川島藤也, 1974, “文化柳氏にしめる氏族の移動とその性格”, 朝鮮學報, 70, 43-75.
 澤宗側, 1990, “廣島市安佐南區の近郊農村におけるの混住化の進行”, 地理學評論, 64A-10, 21-39.
 Phillips, D. and Williams, A., 1980, *Rural Britain—A Social Geography*, Basil Blackwell.
 Hoggart, K. and Buller, H., 1987, *Rural Development*, Croom Helm.
 Lewis, G.J., 1983, *Rural Community*, David &

Charles Ltd.
Pacion, M.(ed.), 1983, *Progress in Rural Geography*, Croom Helm.

Potter, R.B. and Unwin, T., 1989, *The Geography of Urban-Rural Intera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Routledge.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of the Traditional Rural Villiage in the Seoul Metropolitan Suburbs.

Bu-Mai Jung* and Ki-Yeop Choi**

Summary

This study intend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rural society by tracing the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processes of traditional clan villiage (Yeolmi-ri, Silchon-myeon, Kwangju-gun, Kyunggi-province) in the suburbs of Seoul Metropolitan Area.

Rural society has experienced serious change of the social structure by the ever expanding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ince 1960's. The suburbs of Seoul Metropolitan Area is the representative case area of such transformation.

This study analyzed various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structure of a villiage, the processes of residential movement and the occupational shift of each household of the villiage in terms of household's life-history collected by interviewing with each household. And the whole households of a villiage is divided by two groups of the native clan group and the non-clan in-migrant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is villiage is located within a lineal distance of 40km and a time distance of about 30 to 40 minutes, adjoined by the Joongbu(中部)

national highway, the Kyungchoong(京忠) industrial road, the local road between Yangpyung(楊平) and Gonjiam(昆池岩) and having a advantageous locational linkage to Seoul capital city.

2) It is a typical traditional clan villiae constituted of clan family Gu(具) one of whose ancestors had appointed to the prime minister of Chosun Dynasty, and until 1979, 56 out of 60 families of the villiage households were clan families.

3) Since 1979, as the villiage invaded by the out-movement of the small scale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Seoul capital city, labours moved in this vallige from outside and increased villiage size up to 203 households in 1993, consequently the constitutional proportion between the native clan group and the non-clan in-migrant group was reversed up to 28% vs. 72% deepening the sociological heterogeneity.

4) Because of the small scale of industries in this villiage and the vicinity with the city of Seoul, the population turnover of this villiage is very high. The turnover frequency is firstly high within same administrative district of gun(郡) level and secondly high between this villiage and the city of Seoul. Thus short-distance movement is identified.

* Graduate, Dep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geography, Faculty of Social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5) There i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residential movement and the occupational shift. The most numbers of non-farm native group have the experiences of migration while the members of native farming group don't shift both the job and the place of residence. The in-migrant group had several migration experiences but few occupational shifts. Thus occupational shift is high for the native group while residential shift is high for the in-migrant group.

It is concluded that the change proceeded in Metropolitan suburbs was not directed to form the traditional rural village as 'gesund Gebiet' with respect to the ballance among the economic, cultural and environmental adequency.

Key words: Clan villiage, Seoul Metropolitan Suburbs, social heterogeneity, life-history, proportion(ratio) of non farm households, gesund Gebeit.